

# 아버지의 기질에 따른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양육참여 간 관계의 차이

##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 The Role of Paternal Temperament

임 애 련(Ae Ryon Lim), 김 유 정(Yoo Jung Kim), 안 선 희(Sun Hee Ahn)\*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sup>2</sup>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variables related to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For this purpose, 543 fathers of young children living in the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internet survey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marital and job satisfaction. Their temperament was measured with the EAS Temperament Survey(Buss & Plomin, 1984).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both the marital and job satisfaction of the fathers affected their parenting participation. And also, marital satisfaction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an job satisfaction. All temperament types of the fathers had moderating effe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temperament. This study provides the key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also suggests that the temperament of the father should be considered for participation in parenting.

---

▲주제어(Key words): 아버지(father), 양육참여(parenting participation),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 기질(temperament)

### I. 서론

현대사회로 들어온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재고로 이어져, 과거에는 어머니가 전담하던 자녀양육 역시 부모 공동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

다(G.-H. Han, 1996).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한 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아동패널을 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 K. Choi et al., 2014).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버지들의 양육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양육에서 더 많은 역할

---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로, 2015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9239, E-mail: shahn@khu.ac.kr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동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Y. A. Jang & Y. J. Lee, 2008; S.-R. Kim, H.-J. Choi, J.-H. Jeong, & Y.-L. Lee, 2012; S.-W. Seo & D.-K. Lee, 2014).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이나 학력, 교육 수준, 소득 등을 탐색하였고, 자녀의 특성, 직업, 결혼 관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M. E. Lamb(1986)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으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인성 특성, 자아존중감, 부부 간의 일치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일상의 대부분을 가정과 직장의 두 영역에서 보내게 되는 대다수 아버지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결혼생활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규명해 왔는데, 그 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결혼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이었다(R. Feldman, 2000). 자녀의 문제행동과 결혼의 질을 연구한 K. M. Benzies, M. J. Harrison and J. Magill-Evans(2004)에 의하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J. K. Nugent(1991)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아버지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데 반해,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지각하는 아버지는 아내 및 자녀와의 공감감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설명하였다. K. P. McCoy, M. R. W. George, E. M. Cummings, and P. T. Davies(2013)에서는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 양상과 부모의 자녀 양육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에 비해 아버지들의 양육태도가 부부 관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R. H. Kang(2000, 2001)은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K.-S. Baek(2011)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해소시키며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최근 연구들(R. Juhari, S. N. Yaacob, & M. A. Talib, 2013; S. Y. C. L. Kwok, C. C. Y. Ling, C. L. K. Leung, & J. C. M. Li, 2013; E.-M. Yeon, H.-S. Choi, Y.-J. Hong, & J.-A. Kim, 2014)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에 적극적이고,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기혼 남성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버지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은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만족도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B. L. Volling and J. Belsky(1991)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H. S. Lee and Y. N. Lee(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통해, 직업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 양육 간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W. B. Goodman et al.(2011)에서는 근무여건에 있어서의 융통성이라든가 근무시간과 업무부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몇몇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녀 양육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W. J. Lee, 1995).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에 몰입하게 되며,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되므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수준은 그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에도 관련될 수 있다. 양육자의 기질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질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J. Belsky & J. Vondra, 1993; M.-R. Chung, B.-S. Yee, & S.-K. Park, 2013). 앞서 제시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기질은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고유한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질과 양육참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기질은 자녀 양육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부모의 기질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 및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R. Levy-Shiff and R. Israelashvili(1988)는 기질적으로 친화적이고 사회성이 강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한다고 하였으며, J. Belsky and J. Vondra(1993)는 정서성을 가진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기질 연구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기질과 양육참여의 연관성을 입증한 Chung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강한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으며, 특히 활동성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정서성 기질과 양육참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질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써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그리고 기질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 직장,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기질에 따른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양육참여의 향상 방안과 양육방식에 대해 기질 유형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543명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기 아동의 인구비례할당에 따라 표집되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 조사도구

#### 1)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Y. M. You(201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9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문항, 인지적 성취지도 4문항의 4개 하위요인, 26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야외활동이나 놀이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생활지도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만들어 주고 단체 활동이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는 정도를, 가사활동은 식사 및 설거지 등의 가사 측면에 참여하는 정도를, 인지적 성취지도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여가활동 .920, 생활지도 .931, 가사활동 .907, 인지적 성취지도 .880이었다.

#### 2)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선행연구(E. A. Anderson & J. W. Spruill, 1993; S.-Y. Im & T.-H. Kim, 2002; H. M. Kim, 2010; J. H. Kim, 1992; D. H. Olson, D. G. Fournier, & J. M. Druckman, 1987)에서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의 특성 변인을 파악하여 배우자 유사성, 배우자 지지, 부부 의사소통척도의 세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에 대한 측정문항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유사성은 남편과 아내의 행동양식, 개인적 배경, 가치관 등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편과 아내의 좋아하는 행동, 여가 방법, 애정표현 방식, 갈등해결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교육수준, 집안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43)

Variables		n (%)	Variables		n (%)
Age	Under 34 years	90 (16.6)	Residential area	Seoul	204 (37.6)
	35 to 39	294 (54.1)		Busan	74 (13.6)
	40 to 44	127 (23.4)		Daegu	60 (11.0)
	45 to 49	30 (5.5)		Incheon	66 (12.2)
	More than 50	2 (0.4)		Gwangju	55 (10.1)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or less	180 (33.1)	Daejeon	49 (9.0)	
	1- to 3-year college	123 (22.7)	Ulsan	35 (6.4)	
	4-year university	208 (38.3)	Professional	48 (8.8)	
	Graduate school	32 (5.9)	Clerical	121 (22.3)	
Maternal employment	Full-time employee	244 (44.9)	Occupation	Managers	54 (9.9)
	Part time job	82 (15.1)		Sales/Service	72 (13.3)
	Household	217 (40.0)		Laborer	43 (7.9)
				Manufacturing	70 (12.9)
		Self-employed		68 (12.5)	
		Agriculture		32 (5.9)	
		etc.		35 (6.4)	

다루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배우자 지지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와 관련된 요인으로, 남편이 아플 때 아내의 도움과 시중, 남편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아내의 위로, 슬플 때 아내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 남편의 건강에 대한 아내의 관심, 남편의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가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대화의 만족도,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금전 사용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성, 자녀 훈계방식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성,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아내에게 부탁하는 정도 등에 대한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총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배우자 유사성 .903, 배우자 지지 .920, 부부 의사소통 .936이었다.

### 3)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 H. Rhee(2004)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B.-K. Ham, 2007; M. Y. Kim, 2013; Y. Kim, 2013; S. Y. Lee 2009; S.-Y. You, 2010)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직업용통성 4문항, 직업용이성 4문항, 직업안정성 3문항, 급여만족 3문항의 4개인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1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용통성은 월차 및 휴가의 이용, 출퇴근의 유연성, 근무시간 중 외출 가능 여부 등과 같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용이성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체적·정신적 노력 정도를 의미하며, 직업안정성은 현재의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비전과 안전성을 의미한다. 급여만족은 급여의 공정성, 급여에 대한 만족, 급여로 인한 생활수준 등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만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직업용통성 .899, 직업용이성 .875, 직업안정성 .843, 급여만족 .876이었다.

### 4) 기질

아버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A. H. Buss and R. Plomin(1984)이 개발하고 S.-Y. Han(1996)이 번역한 성인용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사용하였다. EAS는 정서성 11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4문항의 세 하위요인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기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서성은 감정 기록이 심하고 화를 잘 내며 주어진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기질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활동성은 성질이 급하고 매우 활동적인 유형이며, 사회성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성 .964, 활동성 .884, 사회성 .806이었다.

## 3. 연구절차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설문지

를 이후의 본조사에 적용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과 지역의 선정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4)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이 보유한 패널을 표집틀로 하여 유아기 아동의 인구수와 전국 7대 도시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할당된 표본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임의표집하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인터넷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4년 9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로 총 576개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나 이상치(outlier)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54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앞서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응답자격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연구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문항들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확보하였고, 이후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LS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평가한 다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후에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외생변수인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하위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고, 내생변수인 양육참여는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B.-R. Bae, 2007).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은 반영지표에 적합한 반면, PLS는 반영지표와 조형지표로 구성된 모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규분포의 가정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W. W. Chin, 1998; D.-M. Koo, 2013). 이에 따라 반영지표와 조형지표로 구성된 본 연구모형에 대해서는 PLS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C.-H. Cho, 2014) 이를 활용하였다. 아버지의 기질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질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질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나타난 군집별로 PLS 모형을 분석하여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양육참여에 대한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그리고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인 양육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대상 아버지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위요인은 생활지도( $M=3.33$ ,  $SD=.87$ )였고, 여가활동( $M=3.18$ ,  $SD=.79$ ), 인지적 성취지도( $M=3.14$ ,  $SD=.88$ ), 가사활동( $M=3.07$ ,  $SD=.94$ ) 순으로 이어졌다. 독립변인 가운데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 $M=3.37$ ,  $SD=.81$ )와 부부 의사소통( $M=3.36$ ,  $SD=.89$ )의 점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사성( $M=3.18$ ,  $SD=.83$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직업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업용이성( $M=2.86$ ,  $SD=.91$ )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직업안정성( $M=2.84$ ,  $SD=.97$ ), 직업용통성( $M=2.80$ ,  $SD=.99$ ), 급여만족( $M=2.79$ ,  $SD=.87$ )의 순으로 이어졌다.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각 변인 내 하위요인 간 문항평균 점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모형의 검증

PLS 모형의 적합도는  $R^2$ 과 중복성(redundancy), 전반적 적합도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W. W. Chin, 1998; M. Tenenhaus, V. E. Vinzi, Y. M. Chatelin, & C. Lauro, 2005).  $R^2$ 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상( $R^2=.26$  이상), 중( $R^2=.13$  이상 .26 미만), 하( $R^2=.02$  이상 .13 미만)로 평가하고, 중복성은 0을 기준으로 양수(적합)와 음수(부적합)로 구분하며, 전반적 적합도는  $R^2$ 과 공통성 값을 적용하여 상(.36 이상), 중(.25 이상 .36 미만), 하(.01 이상 .25 미만)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모형을 분석하여 평가 기준과 비교한 결과,  $R^2$ 은 .381로 상에 해당되었고, 중복성은 .210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적합도는 .502로 상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LS 분석에서는 지표에 따라 집중타당성과 신뢰성 평가를 달리한다. 먼저 조형지표에서는 요인과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outer weight)가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집중타당성이 확보되며(W. W. Chin, 1998), 요인이 구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신뢰성, 즉 내적

일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A. Diamantopoulos & H. M. Winklhofer, 2001). 분석 결과, 조형지표로 측정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해당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 $p < .05$ )이 입증되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반영지표에서는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 $\lambda = .50-.95$ )과 통계적 유의성( $p$ ), AVE(.50 이상), 개념신뢰도(.70 이상)가 충족되어야 집중타당성이 있으며(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1995), 신뢰도 계수( $\alpha = .70$  이상)로 신뢰성을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반영지표에 해당하는 양육참여의 모든 요인들의 요인부하량( $\lambda = .770-.839$ )과 유의성(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VE(.647)와 개념신뢰도(.880), 신뢰도( $\alpha = .819$ )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판별타당성 또한 지표에 맞는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조형지표에서는 요인과 구성개념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상관계수가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고(M. Bruhn, D. Georgi, & K. Hadwisch, 2008), 조형지표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VIF(분산팽창지수)가 3.3 미만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속한 3개 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직업만족도 및 양육참여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와 해당 4개 요인의 상관관계 및 VIF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영지

표의 경우에는 AVE가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지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C. Fornell & D. F. Larcker, 1981), 분석결과 반영지표인 양육참여의 AVE(.647)는 상관계수의 제곱값(.236-.346)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요건을 충족하였다.

###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경로계수=.460,  $p < .001$ ). 세부적으로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세 하위요인이 모두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부부 의사소통(경로계수=.581,  $p < .001$ ), 배우자 지지(경로계수=.317,  $p < .001$ ), 배우자 유사성(경로계수=.307,  $p < .001$ )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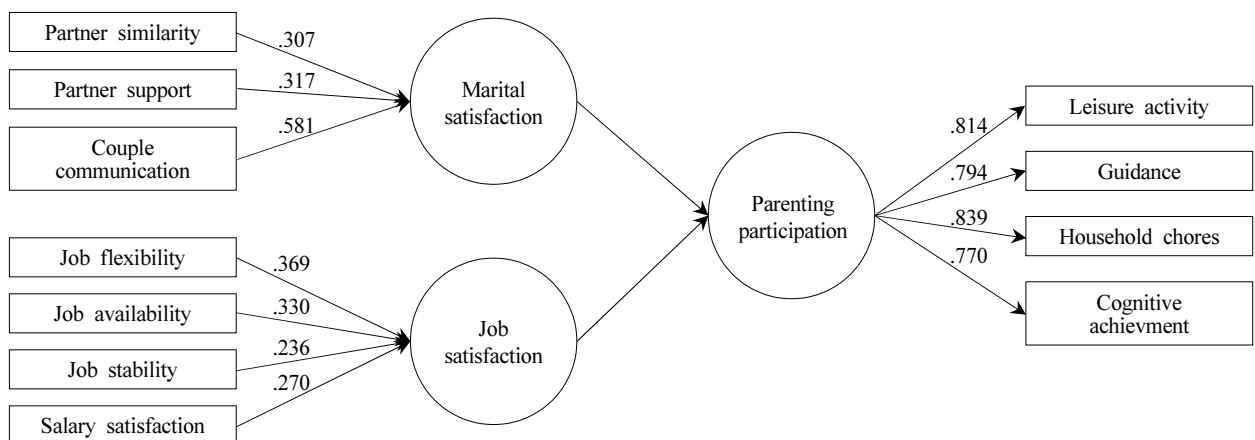
### 4.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

Table. 2.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n Parental Participation

	Path		Path Coefficient	S.E.	t-value(Sig.)
Marital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460	.039	11.749 *
Job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227	.042	5.401 *

\*  $p < .001$



\* $p < .001$

Figure 1. Measurement Model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toward Parenting Participation

Table 3.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to Parental Participation

Path		Indirect Effect
Partner similarity	→	.141
Partner support	→	Parental participation
Couple communication	→	
Job flexibility	→	.084
Job availability	→	Parental participation
Job stability	→	
Salary satisfaction	→	.061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이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경로계수=.227,  $p < .001$ ) <Table 2>. 직업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을 고려한 분석의 결과, 네 개의 하위요인은 모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효과의 크기는 직업용통성(경로계수=.369,  $p < .01$ ), 직업용이성(경로계수=.330,  $p < .01$ ), 급여만족(경로계수=.270,  $p < .01$ ), 직업안정성(경로계수=.236,  $p < .05$ ) 순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5.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 요인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형지표 모형에서는 각 조형지표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간접효과)을 산출식(조형지표가 구성개념에 미치는 영향력×구성개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구할 수 있다(J. I.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의 검증 과정에서 분석된 연구모형 결과를 적용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형지표로 측정된 결혼만족도의 3개 요인과 직업만족도의 4개 요인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들이 직업만족도 요인들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의 조형지표 가운데 양육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 의사소통(.267)이었으며,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배우자 지지(.146), 배우자 유사성(.141), 직업용통성(.084), 직업용이성(.075), 급여만족(.061), 직업안정성(.054)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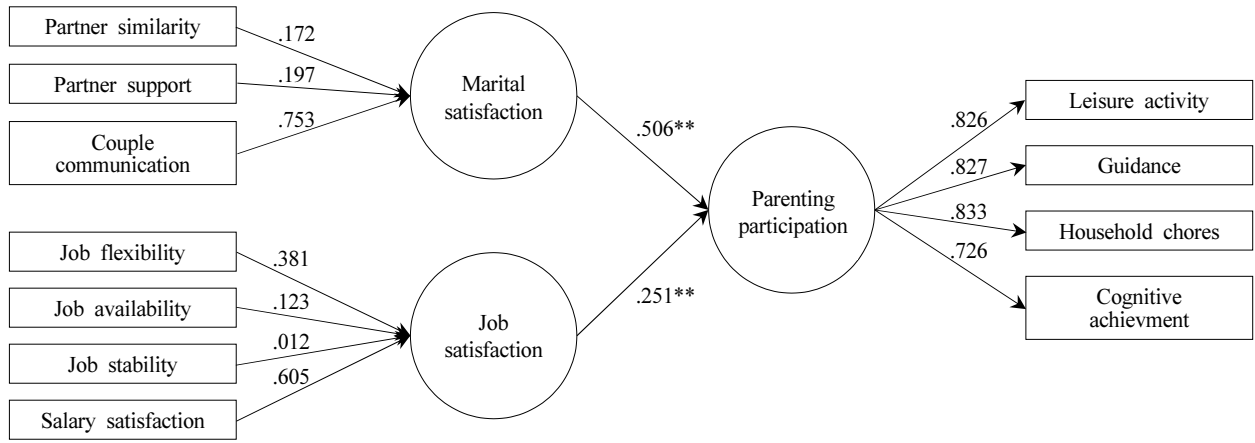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결혼만족도의 영향(경로계수=.460)이 직업만족도의 영향(경로계수=.227)보다 크다는 것에 기인한다. 각 요인과 구성개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의 영향력이 직업용통성과 직업용이성의 영향력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요인들이 해당 구성개념을 거쳐 양육참여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양육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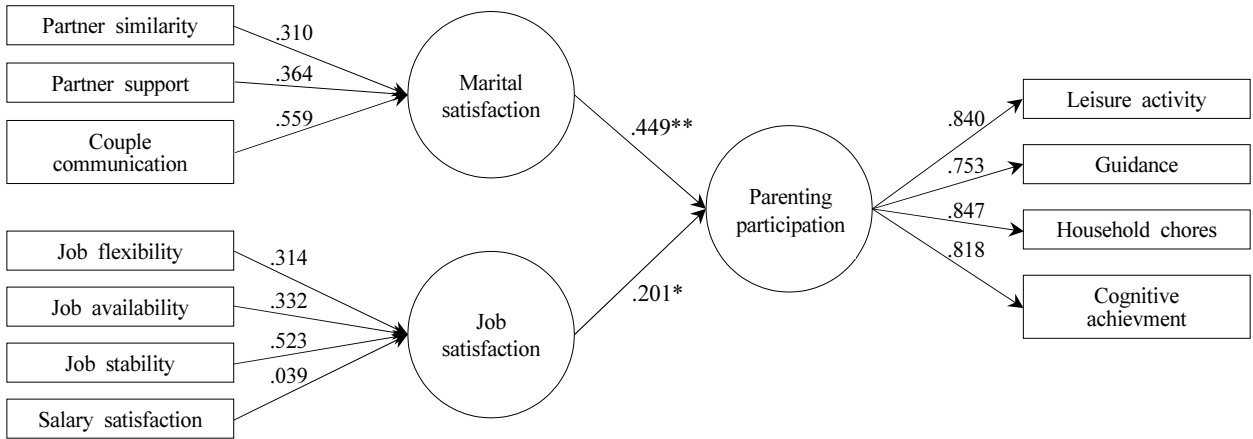
6.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 관계에서 기질의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결과가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아버지의 기질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기질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20개의 기질 문항을 투입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결정하여 입력해야 하므로 군집의 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척도의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표준화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기질은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집단의 수를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20개의 문항은 군집에 맞게 분류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군집1은 사회성이 강한 집단으로 170명이 사회성 기질로 분류되었으며, 군집2는 활동성이 우세한 집단으로 154명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군집3은 정서성 집단으로 219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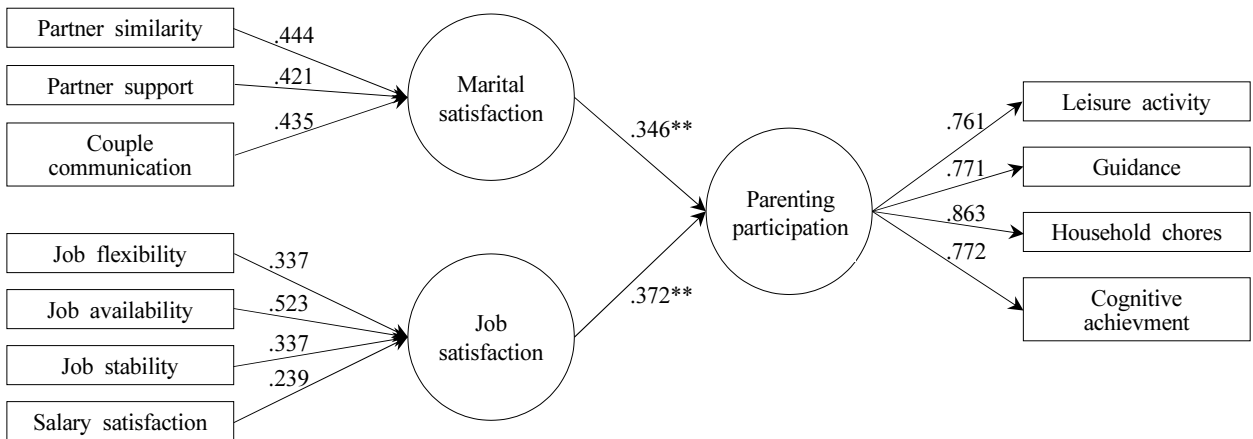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집단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집단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집단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성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경로계수=.506,  $p < .001$ )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251,  $p < .001$ )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부부 의사소통과 급여만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 집단은 결혼만족도(경로계수=.449,  $p < .001$ )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201,  $p < .05$ )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



(a) Emotionality



(b) Activity



(c) Sociability

\* $p < .05$ , \*\* $p < .001$

Figure 2. Measurement Model of Moderating Effect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Father's Temperament on Parental Participation

Path	Traits	Groups			t-values of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			Sig.
		① Emotionality	② Activity	③ Sociability	① - ②	① - ③	② - ③	
Marital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coefficient	.506	.449	.346				<i>p</i> < .001
	S.E.	.054	.071	.070	9.785	25.593	12.850	
	t-value	9.456	6.346	4.970				
Job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coefficient	.251	.201	.372				<i>p</i> < .001
	S.E.	.050	.087	.075	7.367	-19.913	-18.478	
	t-value	5.059	2.323	4.944				

었다. 사회성 집단의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경로계수=.346, *p*<.001)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372, *p*<.001)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보다 직업만족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용이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질의 3개 유형인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집단에서 모두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성 집단에서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성 집단과 정서성 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참여에 있어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은 정서성 집단이었으며, 결혼만족도보다 직업만족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유형은 사회성 집단이었다.

1) 아버지 기질의 조절효과 검증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도출되며, *t* 값이 유의할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다 (M. Keil et al., 2000).

$$t = [PC_1 - PC_2] \div [S_{pooled} \times \sqrt{(\frac{1}{n_1} + \frac{1}{n_2})}]$$

$$S_{pooled} = \sqrt{[\frac{n_1 - 1}{(n_1 + n_2) - 2}] \times [SE_1^2] + [\frac{n_2 - 1}{(n_1 + n_2) - 2}] \times [SE_2^2]}$$

*S<sub>pooled</sub>* : 분산의 합동 추정량

*n<sub>1</sub>* : 집단 1의 표본 수

*n<sub>2</sub>* : 집단 2의 표본 수

*SE<sub>1</sub>* : 집단 1에서 산출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

*SE<sub>2</sub>* : 집단 2에서 산출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

*PC<sub>1</sub>* : 집단 1에서 산출한 경로계수

*PC<sub>2</sub>* : 집단 2에서 산출한 경로계수

각 집단의 분석 결과와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

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기질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질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집단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질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1). 그중 사회성 집단 아버지들의 경우에 양육참여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정서성과 활동성 집단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의 경로에서 아버지의 기질은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선정하여 일상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향관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G. Bouchard and C. M. Lee(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의 양육협조 수준이 높으며,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 Feldman, 2000; R. Juhari et al., 2013; J. K. Nugent, 1991; J. Woo, M. Lee, & C. Jeon, 2003; E.-M. Yeon et al., 2014)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 Y. C. L. Kwok et al.(2013)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들의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들로부터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동시에 자녀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 간의 결혼 관계의 질이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버지라는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K. Bradford and A. J. Hawkins(2006)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로써 양육에 관심에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또 다른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본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B. L. Volling & J. Belsky, 199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또 다른 연구들(F. K. Grossman, W. S. Pollack, & E. Golding, 1988; S. Hur, 1993; S. T. Park, 2010)은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부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도 보고했으며, 일부 연구(R. Juhari et al., 2013)에서는 이들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직업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직업만족도는 직업 여건을 중심으로 한 직업용통성, 직업용이성, 직업안정성, 급여만족을 하위 영향요인으로 하였다. 이때 모든 하위요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그 가운데 직업용통성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편이에 따라 근무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직업용통성은 자신의 상황이

나 편이에 따라 얼마나 근무여건이나 업무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가령 출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든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내고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직업용통성 측면에서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근무시간이나 여건 등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Goodman et al.(2011)의 결과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직장 상황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그러한 양상이 자녀양육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직업만족도의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부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낸 직업만족도의 경우에는 하위요인 중 직업용통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고, 직업용이성, 급여만족, 직업안정성 순으로 이어졌다.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함께 분석에 투입했을 때 각 변인 내에서 하위요인들이 가지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두 개의 독립변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이들 두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서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는 가정 환경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만족도에 비해 개념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녀 양육이 부모 중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역할임을 감안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버지보다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에 양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외의 직장 환경과 관련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앞의 두 변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

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 직장일이 많거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퇴근 후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내용이나 안정성, 급여 수준 등이 낮은 직업만족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편안함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경우와 달리 직업만족도의 효과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얼마나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기질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군집분석을 통해 기질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질 유형별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질의 모든 유형은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그리고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기질의 유형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지만, 기질 유형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는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아버지의 기질을 적용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아버지의 활동성 기질이 양육참여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Chung et al.(2013)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화를 잘 내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환경에 의한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은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이 달라지며, 특히 직업만족도보다는 결혼만족도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성 기질 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에 비해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적이고 성급하며 다혈질 성향이 강한 활동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모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 집단에 속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는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성 기질 집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모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결혼만족도에 비해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던 결과와 상충하며,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정서성 기질 및 활동성 기질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성 집단의 특징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이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 관계에서 만큼이나 직장에서도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 가정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게 되며, 이러한 양상이 자녀 양육에도 반영될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은 모두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버지들이 배우자와 원활하게 소통한다고 인식할 때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 간의 소통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가정 내 상황뿐만 아니라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인식 또한 양육참여를 결정하는데 주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업만족도의 하위요인 가운데에서는 직업융통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근무 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양육참여에도 적극

성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직장에서의 물리적인 근무 여건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일련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독려 방안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주요 생활환경인 직장에서의 심리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른 직업만족도의 차원에 근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지원이란 비단 직장 내에 육아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직업만족도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무 환경과 직장 문화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기질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기질과 상관없이 이들 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각 하위요인과 양육참여 간의 관계 양상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을 고려해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는 정서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과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활동성 기질 집단의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부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아내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성 기질의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근무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이 양육참여로 반영되는 만큼, 기업의 탄력적인 근무 여건 지원을 통해 양육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기질과 상관없이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모두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근거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함에 있어 문헌연구를 참조하여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측정하였고, 하위요인 결정에서도 문헌연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그룹

인터뷰나 토론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요인을 도출한 후 양육참여와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방법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지역에 제한 없이 단기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조사기관에 가입된 패널을 대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고려하여 자료 조사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을 이용하여 기질 유형에 따라 아버지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질 측정 척도인 EAS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질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개인에게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기질을 구분함으로써, 각 집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기질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데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기질적 특성을 고르게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다면 인위적으로 기질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아버지들에게 특정 유형의 기질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기질마다 어떻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명한다면 양육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 보다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데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와 같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다루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nderson, E. A., & Spruill, J. W. (1993). The dual-career commuter family: A lifestyle on the mo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19*(1-2), 131-147.
- Bae, B.-R.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ram.
- Baek, K.-S. (2011). The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on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181-198.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enzies, K. M., Harrison, M. J., & Magill-Evans, J. (2004). Parenting stress, marital quality,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age 7 years. *Public Health Nursing, 21*(2), 111-121.
-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The role of partner support.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2), 37-53.
- Bruhn, M., Georgi, D., & Hadwich, K. (2008). Customer equity management as formative second-order construc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1*(12), 1292-130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coulides, G. A. (Ed.),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pp. 295-33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o, C.-H. (2014). *Development of formative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retail CSR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 K., Bae, Y. J., Song, S., Lim, J.-B., Yi, Y. J., Kim, S., & Kim, S. (2014).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2014*.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Chung, M.-R., Yee, B.-S., & Park, S.-K. (2013).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oddler's father involve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2), 449-469.
- Diamantopoulos, A., & Winklhofer, H. M. (2001). Index construction with formative indicators: An alternative to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269-277.
- Feldman, R. (2000). Parents' convergence on sh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1*(3), 176-191.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odman, W. B., Crouter, A. C., Lanza, S. T., Cox, M. J., Vernon-Feagans, L., & The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1). Paternal work stress and latent profiles of father-infant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88-604.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J: Prentice Hall.
- Ham, B.-K. (2007). *The effects of CEO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 culture and job security in hot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Korea.
- Han, G.-H.(1996). Men's work role and transition to fatherhood: Does transition timing matte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2*(2), 231-244.
- Hur, S. (1993). An analysis of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father's role perceptions and involvement behavi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5), 131-152.
- Im, S.-Y., & Kim, T.-H. (2002). A study on marital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of elderly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3), 111-128.
- Jang, Y. A., & Lee, Y. J. (2008).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child's self-concept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187-206.
- Juhari, R., Yaacob, S. N., & Talib, M. A. (2013). Father involvement among Malay Muslims in Malaysia.

- Journal of Family Issues*, 34(2), 210-229.
- Kang, R. H. (2000). Determinants of father's role performan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6), 15-28.
- Kang, R. H. (2001). Career vs. child: Differences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and Japanese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2), 119-133.
- Keil, M., Tan, B., Wei, K., Saarinen, T., Tuunainen, V., & Wassenaar, A. (2000). A cross-cultural study on escalation of commitment behavior in software projects. *MIS Quarterly*, 24(2), 299-325.
- Kim, H. M. (2010). *Self-effects and counterpart-effects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1992). *A study on the process of value-search-comparison on the courtship: Focused on working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I. (2012). Reflective indicator vs. formative indicator: Theoretical discussion, empirical comparison, and practical usefulness. *Korean Marketing Review*, 27(4), 199-266.
- Kim, M. Y. (2013). *Effects of office worker's communication at workplace and with their spouse on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buk, Korea.
- Kim, Y. (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job stability and eligibility on job satisfaction on new public official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Kim, S.-R., Choi, H.-J., Jeong, K.-H., & Lee, Y.-L. (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1), 551-572.
- Koo, D.-M. (2013). *Research methodology*. Gyeonggi: Hakhyunsa.
- Kwok, S. Y. C. L., Ling, C. C. Y., Leung, C. L. K., & Li, J. C. M. (2013). Fathering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8), 1051-1060.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Y: Wiley.
- Lee, S. Y. (2009). *A study on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ommunication differences among constituent members of organ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 J. (1995).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s satisfaction with marriage/job on their role-play and participation in child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S., & Lee, Y. N.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0(2), 193-212.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34-40.
- McCoy, K. P., George, M. R. W., Cummings, E. M., & Davies, P. T. (2013).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marital conflict, 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2(4), 641-662.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4). *Population Statistics of Resident Registration*. Retrieved from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Nugent, J. K. (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75-485.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 (1987). *Counselor's manual for PREPARE/ENRICH*. MN: Prepare/Enrich.
- Park, S. T. (2010). *Structural Modeling of paternal determinants related to young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Rhee, S. H. (2004). *A study on the perceived rewards and costs, and role performance of fa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S.-W., & Lee, D.-K. (201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a child'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57-178.
- Tenenhaus, M., Vinzi, V. E., Chatelin, Y. M., & Lauro, C. (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8(1), 159-205.
-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 Woo, J., Lee, M., & Jeon, C.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2), 91-101.
- Yeon, E.-M., Choi, H.-S., Hong, Y.-J., & Kim, J.-A. (2014). Relationships among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and engagements regard to their psychological featur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6, 51-78.
- You, S.-Y. (2010). *A study for the determination factor of workplace satisfaction of the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Korea.
- You, Y. M. (2013). *The study to adress the fathers'awareness and involvement with child care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 Received: July 15. 2015
- Revised: September 28. 2015
- Accepted: September 30. 2015